

명암가사(明庵歌辭) 〈오도가(吾道歌)〉의 도통(道統) 형상과 그 의미

조 유 영*

차 례

- | | |
|---------------------|--------------------------------|
| 1. 서론 | 4. 근대전환기 전통 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도통의 문제 |
| 2. <오도가>의 서술 양상 | |
| 3. <오도가>에 나타난 도통 형상 | 5. 결론 |

국문초록

명암가사 <오도가>는 근대전환기 개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유교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근대적 사상이나 가치를 담아내기보다는 중세적 가치와 세계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을 단지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퇴행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대전환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민족과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자신의 신념 속에서 찾고자 했던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단 계약교수

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오도가>의 구성과 서술 양상을 살피고, 작품에 나타나는 도통의 형상과 작자의 현실 인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오도가>는 근대전환기 외세의 침탈에 의해 기울어져 가던 조선 사회에 유학의 도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작자의 지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또한 전통지식인으로서 서구 문명의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나뉠의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이 이태일의 <오도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종착점은 결국 흔들리는 유교를 수호하고 이를 통해 요순지치로 상징되는 유교적 이상 세계로의 복귀였다. 이를 위해 작자는 도통의 연원을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가문의 선현을 통해 이러한 도통이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주제어 : 도통, <오도가>, 명암가사, 이태일

1. 서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격변기 속에서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고수했던 이태일(李泰一, 1860-1944)은 자가 삼수(三叟)이며 호는 명암(明庵)이다. 그는 경북 영천시 자양면 원각리의 본가에서 태어나 가학(家學)을 기반으로 당대 영남지역의 명유(名儒)였던 서산(西山) (金興洛, 1827-1899)과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1842-1910), 척암(拓庵) 김도화(金道和, 1825-1912), 석호(石湖) 류도성(柳道性, 1823-1906) 등과 종유(從遊)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비록 향촌에서 평생 강학과 수양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지만, 외세의 침탈에 의한 민족의 위기와 망국의 아픔을 마냥 외면했던 이는 아니었다. 비록 김도화와 같이 의병을 일으켜 일제

에 무력으로 항거하거나, 이만도의 경우처럼 죽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지는 못하였지만,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 속에서 망국의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餓則效西山 굶는다면 서산(伯夷叔齊)을 본 받겠고,
 食則效疊山 먹는다면 첩산(謝枋得)을 본 받으리라.
 隱則效孟山 숨는다면 우산(程嬰)을 본 받겠고,
 避則效鼻山 피한다면 비산(徐弘祖)을 본 받으리라.
 生則效冷山 살아서는 냉산(洪皓)을 본 받겠고,
 死則效文山 죽는다면 문산(文天祥)을 본 받으리라.
 隨遇效六山 경우에 따라 육산을 본 받으면,
 邱陵可學山 구릉도 산을 배울 수 있으리라. <六山-癸丑斥章時>¹⁾

이 시는 그가 1913년 일제의 조선 합병을 기념하여 지역의 유명 선비들에게 내려진 기념 훈패(勳牌)를 거절하면서 일본 경찰서장에게 보낸 작품이다. 시에 등장하는 육산(六山)은 주나라 문왕의 회유를 거부하고 은거한 백이숙제를 비롯하여, 송나라 말기의 충신 사방득(謝枋得), 춘추시대의 충신 정영(程嬰), 명말청초 출사를 거부한 서홍조(徐弘祖), 남송의 홍호(洪皓)와 문천상(文天祥)을 지칭하며, 모두 중국 역사에서 절의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을 본 받겠다는 이 시는 결국 일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념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이태일은 암울한 시대상 속에서도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삶과 가치관을 고수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며, 이러한 그의 가치관과 현실 인식은 그가 남긴 가사 <오도가(吾道歌)>와 <태평책가(太平策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태일이 보여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조선의 식민적 근대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1) 國譯『明庵詩』全書 第二輯, 대보사, 2018, 16쪽.

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이 시기 이태일과 같은 이들의 문학 작품들은 근대적 사상이나 가치를 담아내기보다는 중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전통적 사유를 통해 인식하고자 하는 모습을 견고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의 한계를 지적 받을 수도 있을 듯하다.²⁾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단순히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퇴행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근대전환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몸소 경험하면서 외세의 침략에 의해 억압받는 민족과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자신이 믿었던 유교라는 사상적 틀 속에서 찾고자 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³⁾

그가 남긴 2편의 가사 <오도가>와 <태평책가>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근대전환기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유교의 도를 굳건히 하여 이러한 난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뉠의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태일이 남긴 두 작품은 근대전환기 전통 지식인의 사유와 현실 인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2) 우리의 문학사에서 근대전환기를 논할 때 주류적 흐름을 형성한 것은 '근대적 인식의 단초'를 보여주는 작가나 작품들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세에 비해 근대를 발전적 시대로 보고, 자생론적 측면에서 우리의 근대를 발견하고자 했던 노력과 시각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여전히 유교를 고수하며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현실 인식과 중세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은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3) 안외순(『식민지적 근대문명에 대한 한국 유교의 분기와 이념적 지향』, 『동방학』 17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9.)은 한국 유교의 식민지적 문명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 방향으로 유형화한다. 첫째, 식민적 근대문명을 거부하면서 무력을 동원한 국권수호투쟁을 전개한 저항 유림 계열, 둘째, 국가 수호보다는 유교 수호에 더 가치를 부여하여 식민적 근대문명을 거부하고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을 고수하고자 한 탈정치적 은둔 유림 계열, 유교혁신운동을 통해 유교와 근대 보편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한 계몽적 저항 유림 계열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유형 분류로 파악한다면 이태일은 탈정치적 은둔 유림 계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하에서 항일 운동은 전개한 이들이 여러 존재함을 볼 때, 이후 이러한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작품을 다른 연구 또한 단지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이다.⁴⁾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태일의 작품들 중 <오도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을사늑약 이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인 1908년에 지어진 것으로, 유교의 정당성과 도의 연원, 즉 도통(道統)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유교의 핵심적 가치인 도통은 기본적으로 도학적 순수성이라는 절대주의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어 유교가 아닌 다른 사상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외래의 사상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근대전환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도통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대 전통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오도가>의 구성과 서술의 대략적 양상을 살피고, 이후 작품에 나타나는 도통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발판으로 근대전환기 전통 지식인으로서 이태일이 가졌던 현실 인식과 도통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구명해 볼 것이다.

2. <오도가>의 서술 양상

이태일의 <오도가>는 총 273구로, 전체적으로는 4·4조와 3·4조가

4) 이동영, 『李明庵의 歌辭』, 『도남학보』 2집, 도남학회, 1979.

5) 道統이란 '유교의 참정신이 전해 내려온 흐름을 뜻하는 말이다. 요순으로 대표되는 고대 聖王으로부터 道の 전수를 계보적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유교의 도학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참조)

중심이 되어 율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오도가>란 제목 밑에는 “척이단(斥異端) 정사도(正斯道)”가 기재되어 있어 이 작품이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유교의 도를 지키고, 이단을 물리치자는 위정척사 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도가>는 서사-본사-결사의 삼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사는 다시 다섯 개의 의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⁶⁾ 전체 작품의 내용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와 같은 외래 종교들이 난립하는 근대전환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일월암의 주인공(主人翁)이 태평양에 배를 띄워 오도종주(吾道宗主)를 찾아가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근대전환기 개화의 물결 속에서 오도(吾道), 즉 유교의 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작자의 복고적 사유가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明明明明호 日日月월庵이	主人翁翁翁니 귀아닌나
伏복羲히氏시오 디은비로	太티평평洋양의 놈피덜너
茫茫茫字우內너 바리보니	英英雄웅豪호傑걸 몇몇친고
莘신野야雲운이 가난 農농夫부	成성湯탕니 마자가고
傅부岩암烟연이 사난 老노人인	高고宗宗니 들러가고
渭위水수月월이 낙는 漁어夫부	文문王왕니 바리가고
草초堂당春춘이 자는 선비	昭소烈열니 차자간다
그나마 英英雄웅豪호傑걸	다엇디 나라리요
鳴오乎호鳴오乎호復부鳴오乎호라	吾오道도宗宗主主중 차자가시

<吾道歌>⁷⁾

6) 본사의 단락 구분은 이후 다시 상술할 예정이다.

7) 이태일, 『國譯 明菴歌辭 全書 第一輯』, 대보사, 2018. 이후 <오도가>의 원문 인용은 이 책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태일은 이 작품의 제목을 <吾(오)道(도)歌(기)라>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도 이 작품을 <오도가>로 지칭하고 있기에 이를 따른다. 또한 작품의 앞부분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고 뒷부분은 한자로만 쓰여 있다. 본문에서는 원문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오도가>의 처음을 장식하는 서사 부분이다. 일월암의 주인인 화자는 오도종주를 찾기 위해 태평양에 배를 띄우고, 이후 중국의 영웅호걸들을 나열한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웅호걸들은 은나라 탕왕의 재상이었던 이윤(伊尹), 은나라 고종 때의 명신인 부열(傅說), 주나라 문왕이 초빙한 강태공(姜太公) 여상(呂尙), 촉한(蜀漢) 소열황제(昭烈皇帝)의 제갈량(諸葛亮)이다. 이러한 영웅호걸들은 모두 중국 고대 성왕(聖王)들의 명신(名臣)이며, 왕을 도와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켰던 이들로서, 유교의 절대적 행동 준칙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상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들을 작품의 서사에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화자가 “흔히비와 두히비와 우리工夫 다허거든 明王聖主 나가생계 堯舜之治 ㅎ여보시”라고 서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술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화자가 오도종주를 찾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정부분 이해하게 된다. 결국 오도종주를 통해 유교의 진정한 도를 체득하고, 나아가 요순과 같은 명왕성주를 도와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여 삼대(三代)의 태평성대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화자가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사에 나열되어 있는 ‘영웅호걸’들은 궁극적으로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오도가>의 본사를 각각의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성	분량(구)	내용
본사 1	19~66	당대 종교의 난립상과 각 종교가 가진 한계를 화자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유교만이 진정한 도이므로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함
본사 2	67~121	하늘로부터 품부(稟賦) 받은 도(道)가 삼황오제(三皇五帝)로부터 주자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도통 계보를 제시함

본사 3	121~156	기자조선(箕子朝鮮)으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도통 계보를 제시함
본사 4	157~204	가문의 내력과 인물들을 계보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가문이 유교의 도를 계승하고 있음을 피력함
본사 5	205~267	이단을 물리치고 창평궐리를 찾아가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을 배워 요순지치(堯舜之治)를 함께 하자고 함

오도가의 본사는 “皇天니 不佑하여 十教紛紜 ㅎ단말가”로 시작되는데, 이는 근대전환기 외래 종교의 난립상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당대 여러 외래 종교들의 문제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제시하여 유교만이 진정한 도임을 강조하고, 청자들에게 오도(吾道)인 유교로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화자의 현실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즉 당대 조선 사회의 혼란과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외래 종교의 도래와 유행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사의 핵심 내용인 오도종주를 찾는 과정은 이러한 현실 인식에 의해 외래 종교의 난립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행위로서의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오도종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화자는 먼저 오도(吾道)의 연원이 하늘의 상제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본사 2를 통해 유교의 도가 상제(於皇上帝)로부터 내려와 ‘반고씨(班固氏)’를 거쳐 고대 성왕(聖王)인 삼황오제(三皇五帝)와 요순(堯舜), 그리고 우탕(禹湯)으로 전해졌음을 언급하고, 이후 공자와 맹자를 거쳐 북송의 주돈이, 정이와 정호 형제, 그리고 주자로 이어지는 중국의 도통 계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도통은 본사 3으로 이어지면서 기자(箕子)를 연원으로 한 정몽주와 조광조, 이언적, 이황, 정구, 장현광, 정경세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도통 계보로 확장 서술된다. 이후 본사 4에서는 가문의 선현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가문이 유교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사 5에서는 공자의 고향인 창평궐리(昌平闕里)에 찾아가 부자묘를 배알하고, 공자의 제자인 안자(顏子)와 증자(曾子), 자사(子思)와 같은 선현들의 도를 언급한다. 이후 화자는 이러한 선현의 공부를 다 배운 후에는 명왕성주(明王聖主)에게 출사하여 요순지치(堯舜之治)를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그가 찾고자 하는 오도종주는 결국 공자이다. 그리고 본사의 주요 흐름은 결국 공자가 살았던 중국의 창평궐리를 찾아 공자를 비롯한 선현의 도를 배워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고, 이러한 서술의 핵심에 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사의 오도종주를 찾아가는 과정은 유교의 연원과 그 계보, 즉 도통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康衢烟月 발근달이	童子업고 노리흐식
至公흔 이말삼을	東西南北 가치듯소
어와吾道 壯홀시고	萬古다시 발갓쏘다
乘彼白雲 가는날이	上帝前이 無愧홀쇠
東西洋이 사은子孫	이닌노리 잇디말기

결사에서는 “康衢煙月 발근달이 童子업고 노리흐식”라고 하여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켜 요순지치(堯舜之治)가 이뤄지는 세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청자들에게 이 노래를 같이 듣자고 하면서 우리의 도가 다시 밝아진다면 흰구름을 타고 상제(上帝)에게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동서양(東西洋)에 사는 자손(子孫)들에게 이 노래를 잊지 말기를 당부하며 작품을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도가>는 외래 종교가 도래하여 난립하고 있는 근대전환기의 시대상 속에서 오도, 즉 유교의 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조선 사회와 우리 민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작자의 현실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의식을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을 통해 나름의 구조적 통일성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오도가>에 나타난 도통 형상

주지하다시피 <오도가>의 본사는 오도종주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교의 도통 계보를 언술하고 있는 부분이 중심을 이룬다. 유교에서 도통은 선진(先秦)시대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던 문제이다. 당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쟁명 속에서 맹자는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의 도통 계보를 정립하여 유교의 정통성을 확립한 바 있으며, 불교와 도교가 성행했던 당말(唐末)의 한유(韓愈)는 맹자를 포함하여 유교의 도통을 재확립하였다. 남송(南宋)의 주자(朱子)는 신유학인 성리학적 입장에서 공자 이후 안자-증자-자사-맹자-정호·정이-주자로 이어지는 도통을 더욱 체계화하였다.⁸⁾ 따라서 유교의 도통 정립 과정 속에는 도학적 순정성을 기준으로 정통과 비정통, 순수와 비순수라는 정치권력적 맥락이 동반되면서 외래 사상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주자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삼았던 조선은 이러한 주자의 도통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우리의 도통은 국가적 차원의 문묘 종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일종의 문화권력으로 작동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붕당 간의 잦은 집권 세력의 교체에 의해 문묘에 종사된 선현의 출향과 복향이 반복되었다.⁹⁾ 이러한 과정에서 도통이 가진 국가적 권위는 점차 추락하는 상황이 나타났으며, 국가

8) 유교의 도통 정립과 관련해서는 김동연의 연구(『조선 후기 가사의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 경북대 석사논문, 2017.) 참조.

9) 대표적인 예로 율곡 이이의 문묘 종사는 집권 세력의 교체에 의해 배향과 출향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도통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 차원만이 아닌 학과적 차원, 학맥과 결합한 가문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도통에 대한 인식이 다층화 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났다.¹⁰⁾ 그리고 이러한 도통 인식의 변화는 18세기 이후 가사나 시조 작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이 18세기 권섭(權燮)의 <도통가(道統歌)>나, 18세기 후반 이관빈(李寬彬)의 <황남별곡(黃南別曲)>, 19세기 초반 윤영섭(尹永燮)의 <황산별곡(黃山別曲)>, 작자 미상의 <하서도통가(河西道統歌)>, 19세기 후반 조항(趙攄)의 <기구요(箕裘謠)> 등의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학과나 가문,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형성된 작가의 도통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 초반 근대전환기에 창작된 <오도가> 또한 이러한 작품들처럼 작가의 개인적 차원의 도통 인식이 적극적으로 투영된 작품이다.

箕子朝鮮 도라오소	井田制度八條約은
遺風至今完然하다	松京을 내려서니
圃隱先生 竹橋로다	三代至治하 잔經營
靜庵先生 말삼닐쇠	九經演義續大學은
晦齋正學宗旨로다	聖學十圖 발키시니
退陶正統 여기로다	그나마 淵源學問
예도나고 데도난다	玉淵亭 말근물은
溪水源流 흘러닛고	鶴架山 높픈峰은
陶山正脉 내려왔다	寒岡의 귀경하고
東洛이 건넌가자	愚山을 바로가여
錦水를 후여드니	無邊湖水 멀리흘너
洛水를 드러갓다	嶠南山水 다불소나
東湖을 둘러보니	水壺秋月 발근고덕

10) 조유영, 『조항의 <箕裘謠>에 나타난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50, 한국시조학회, 2019, 166-168쪽.

奇花瑤草 버럭났다 畫圖江山 여그로다

이 부분은 <오도가>에서 우리의 도통 계보를 구체적으로 언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우리가 소중화로서의 예의속(禮儀俗)을 갖추게 된 시점을 기자(箕子)로부터 찾아왔다. 그리고 근대전환기 이태일의 <오도가>에서도 기자조선을 동방 도통의 첫 머리에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자 이후는 바로 고려 후기 포은 정몽주와 조선조의 선현들이 나열된다. 즉 여말선초 성리학의 출발을 알렸던 정몽주를 비롯하여 조광조와 이언적, 이황 등 여러 인물들이 차례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은 계보로 요약된다.

鄭夢周-趙光祖-李彥迪-李滉-柳成龍(玉淵亭)·金誠一(鶴架山)-鄭述-張顯光(東洛)-鄭經世(愚山)-李栽(錦水)-李象靖(無邊湖水)-李儼(東湖)

이와 같이 <오도가>에서는 정몽주에서 조광조, 이언적과 이황, 그리고 류성룡과 김성일, 정구로 이어지는 도맥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오도가>는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도통 계보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계의 학문을 '退陶正統'과 '淵源學問'으로 제시하여 퇴계(退溪)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옥연정으로 흘러들고, 도산(陶山)의 정맥이 학가산으로 내려왔다고 한 서술을 통해 이러한 작자의 도통 인식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후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 그리고 우복 정경세, 밀암 이재, 대산 이상정, 그리고 고령의 동호 이서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낙동강을 따라 흘러 내려오는 물의 흐름에 빗대어 도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태일은 <오도가>에서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입장에서 우리의 도통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퇴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영남학파는 학봉 김성일을 중

심으로 ‘이황-김성일-장흥효-이현일-이재-이상정-남한조-유치명-김홍락과 김도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학파적 흐름과 서애 류성룡을 중심으로 ‘이황-류성룡-정경세-류진-정도응-박손경-정중로-이중상-류주목-류도성’으로 이어지는 흐름, 한강 정구를 중심으로 여헌 장현광과 동호 이서 등 성주 및 고령, 대구 등 중부 내륙권을 중심으로 한 흐름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태일은 이황을 기준으로 이러한 학파적 분화를 넘어서서 영남학과 전체를 아우르면서 도통을 노래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태일이 이러한 도통 인식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가문의 선현들과 그들의 행적을 노래하고 있는 본사 4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답을 바라보니	伽倻山 第一峯이
碧珍郡이 여기로다	우리始祖 泰山勳業
麗史이도 輝煌하네	金紫銀靑大提學은
文任淸班 몇代런고	年年杜宇 우난소리
山花先祖 글句로다	三仁六臣 다드시니
靖簡先祖 忠義로다	烏山公 經學文章
四佳詩이 다히엇고	淸河公 말근德은
淸河之水 흘러닛다	淸族哉라 두번말삼
正宗大王 이덜소냐	子孫니 流落호여
洛江左右 허쳐닛다	二水三山도홀시고
島夷之亂 避히난니	릴흠도흔 紫陽洞은
將仕府君 肇基로다	鶴眠獨樂 디훈亭이
旅老手筆 비치난다	通正公 슈문行義
儒林師友 차자오고	塑窩公 斯文教育
學宮마다 講學하고	永慕公 닷은箕裘
湖門에 受授하고	曾王考 神妙筆法
子孫 어찌다말호리	우리祖考 一生말삼
異端을낭 멀니호라	착하면 聖人니오
몹시면 盜躋니라	暫時달 이덜손양
어지갓치 귀예닛다	우리父母 膝下이서

우리兄弟	자라나서	孝悌忠信	신말삼
富貴榮華	빅기로다	材調도	투미흐나
正牆面	니 무산릴고	歷歷히	생각흐니
우리답도	儒家로다		

인용문은 벽진 이씨 가문의 시조로부터 이태일까지의 세계(世系) 중 가문을 현창(顯彰)한 선현들을 나열한 부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야산 아래 벽진군(성주의 옛 지명)을 “우리 집”이라고 칭하면서 먼저 벽진 이씨 시조인 이충언(李愬言)이 고려를 개국하는데 힘써 고려사에 찬란하게 남았음을 말하고, 이충언 이후 자신의 가문에 대제학을 비롯한 고관대작이 몇 대를 걸쳐 이어나갔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후기 문인이었던 산화(山花) 이견간(李堅幹, 1259-1330)의 시 <봉사관동문두견(奉使關東聞杜鵑)>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견간의 문재(文才)를 칭송하고, 선산(善山) 삼인(三仁)의 한 사람이며, 생육신(生六臣)의 한 명이었던 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 1392-1480)과 그의 아들이었던 오산(烏山) 이순(李恂, 1416-1493), 그리고 청백리로 알려졌던 노촌(老村) 이약동(李約東, 1416-1493)을 제시하면서 벽진 이씨 가문에 대한 정조의 평가가 청족(淸族)이었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후 벽진 이씨 영천 입향조인 이배원(李培源)의 아들 장사랑(將仕郎) 이의(李椅)가 자양동(紫陽洞)에 터를 닦았던 일을 언급하고, 이수눌(李守訥)·이수겸(李守謙)·이수인(李守認)의 학면정(鶴眠亭)과 이지백(李知白)의 독락당(獨樂堂)이 여헌 장현광의 친필 편액을 받았음을 서술하였다. 또한 이의의 아들이며 통정대부를 제수받았던 11대조 통정공(通政公) 이수겸(李守謙, 1526-1611)의 학덕을 강조하고, 6대조 소와공(塑窩公) 이석화(李錫華, 1706-1767)의 교육과 강학을 서술하면서, 그의 아들 영모공(永慕公) 이유훈(李猶龍)이 호문(湖門) 즉 대산 이상정의 문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태일에게 증조부(曾祖父)가 되는 이재장(李載璋)이 글씨에 뛰어났음을 말하고, 조부(祖父)인 이진현(李鎭鉉)은 척이단(斥異端)과 함께 성

학지학(聖賢之學)을 강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父)인 이승원(李承源)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강조하였음을 말하고, 자신의 집안이 유가(儒家)임을 내세우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벽진 이씨 선현들의 계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李愬言(始祖)-李堅幹-李孟專-李恂-李約東-李椅-李守謙-李錫華-李猶龍
-李載璋(曾祖父)-李鎭鉉(祖父)-李承源(父)-李泰-

<오도가>에 등장하고 있는 벽진 이씨 가문의 선현들은 이견간의 경우처럼 문장에 뛰어났거나, 이맹전처럼 충절을 몸소 실천하거나, 이약동의 경우처럼 벼슬에 나아가 청백리로 그 이름을 널리 알렸거나, 또는 향리에 은거하며 강학과 수양에 매진했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천의 벽진 이씨 누정이었던 학면정과 독락당을 여헌 장현광과 관련지어 언술하거나, 이유룡을 대신 이상정의 문인으로 서술함으로써 영남학과의 도맥이 자신의 가문으로 내려왔음을 강조하는 의도 또한 나타난다. 결국 <오도가>에 나타나는 이태일의 도통 인식은 그가 가진 가문 의식과도 일정부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태일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평생 영천에 머무르면서도 당대 경북 북부 지역의 巨儒였던 서산 김홍락과 향산 이만도, 척암 김도화, 석호 류도성 등과 중유(從遊)하였던 인물이다. 향산 이만도가 퇴계의 가학을 계승하였다면 서산 김홍락과 척암 김도화는 퇴계에서 학봉 김성일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하는 인물들이며, 석호 류도성은 퇴계에서 서애 류성룡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다. 따라서 영남학과 내의 여러 학맥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오도가>의 도통 계보는 이태일을 둘러싼 이러한 관계망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오도가>의 도통 계보는 영남학과의 일원이며 벽진 이씨 가문의 후손이었던 이태일의 개인적인 도통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늘의 도가 중국 고대 성왕들을 거쳐 남송의 주자까지 이어졌다는 전대 유학자들의 도통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우리의 도통 계보를 서술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적 차원의 도통 인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도통을 중심으로 영남학파의 대기한 학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영남학파의 도통을 자신의 가문으로 끌어들이며 ‘우리 집 또한 유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도통이 자기에게 이어졌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태일 스스로 가학을 기반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당대 영남지역의 거유(巨儒)들과 공유하면서도 뚜렷한 사승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 일련의 상황들이 반영된 결과라 추측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오도가>에 나타난 도통 계보는 유교의 도통이 중국으로부터 조선으로 흘러 들어와 퇴계를 학문적 종장으로 삼는 영남학파로 이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가문의 선대를 통해 이러한 도통이 자신의 가문으로 이어져 결국 자신에게 닿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오도가>에 나타난 도통 형상은 이태일이 가진 개인적 차원의 도통 인식이 적극적으로 구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근대 전환기 전통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도통의 문제

유교의 도통은 도학적 순수성이라는 기준 속에서 외래 사상에 대한 절대주의적 태도가 내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태일의 <오도가> 또한 이러한 절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전통적으로 유교와 경쟁 관계에 있던 불교 및 도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와 같은 외래 종교에 대한 화자의 태

도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근대전환기 외세의 위협에 의한 조선 사회의 위기를 외래 종교들의 도래 때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태일의 현실 인식이 가지는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오도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단순히 근대전환기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전통지식인의 수구적 태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태일의 <오도가>는 1908년에 지어진 작품이다. 이 시기는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어 망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서구 근대 문명의 파고가 더욱 세차게 밀어 닥치는 상황에서 계몽의 열기는 더욱 확산되어 갔던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지식인들의 현실 대응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국난 극복을 위해 개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유교의 개신(改新)을 실천하고자 했던 이들도 있고, 서구 근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유교의 도를 끝까지 수호하고자 한 이들도 존재하였다.¹²⁾ 이태일 또한 종래의 유교를 수호하고자 했던 이들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조선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 외래 종교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의 거센 도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교의 도통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태일이 주목했던 것은 <오도가>의 서사에서 제시한 유교적 영웅이었다. <오도가>에 등장하는 영웅호걸들은 은나라 탕왕의 재상이었던 이윤, 은나라 고종의 명신이었던 부열, 주나라 문왕이 초빙한 강태공 여상, 촉한 소열황제가 삼고초려(三顧草廬)했던 제갈량 등이다. 이들은 모두 야인(野人)으로 지내다가 성군(聖君)을 따라 몸을 일으켜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켰으며, 후대 유교사회에서 진유(眞儒)로 받아들여졌던 인물들이다.¹³⁾ 따라서 유교의 출처관 속에서 때에 맞는 처신을 몸소 실

11) “皇天이 不佑하여 十教紛紜한단말가”라는 언술에서 이러한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12) 근대전환기 전통지식인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주 3을 참조.

천했던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태일은 이러한 인물들을 영웅호걸로 인정하였으며, 당대 혼란한 조선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현실 인식은 화자가 오도의 연원 즉 오도종주를 찾아가는 것으로 형상화되며, 오도를 찾아가는 과정은 도통의 흐름을 중국과 조선, 그리고 벽진 이씨 가문으로 이어 놓고 있다. 즉 하늘의 도가 고대 성왕들로부터 춘추전국시대의 공자와 맹자를 거쳐 남송의 주자로 이어지고, 이러한 도가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태일은 벽진 이씨 가문의 선현들을 통해 유교의 도가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그가 찾은 오도의 종주는 공자였다.

공자는 유교의 개조(開祖)라 할 수 있기에 전통지식인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공자를 오도종주로 인식하는 이태일 또한 유가의 보편적인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만 공자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百家을 除斥호고	吾道을 찾아가시
나혼자 차자가라	大韓百姓 모도가시
右편을랑 西洋불너	左便을랑 東洋불너
仁義禮智冠盖딛고	干戈弓劔舟車호여
鴨綠江을 건너뛰여	昌平關里 차자가시
(중략)	
흔히비와 두히비와	우리工夫 다호거든
明王聖主 나가생계	堯舜之治 호여보시
康衢烟月 발근달이	童子업고 로리호시
至公호 이말삼을	東西南北 가치듯소

13) 조유영, 앞의 논문, 169-170쪽. 참조

위의 인용문은 화자가 공자의 창평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언술한 부분과 오도를 배운 후 명왕성주를 섬겨 요순지치를 이루자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다. 또한 중략된 부분은 화자가 부자묘(夫子廟)를 배알하고, 공자와 문왕, 안자, 증자, 자사의 도를 배워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교의 도를 배워 명왕성주를 섬기고, 이를 통해 유교에서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인 요순지치를 실천하자는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언급은 그가 바라는 이상 세계가 요순의 세계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유교의 도를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도가>의 서사에서 나열하고 있는 중국의 명신들이 영웅호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인용문의 전반부에서 吾道를 찾아가는 데 있어 ‘대한백성(大韓百姓)’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과도 함께 가야함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근대전환기 전통지식의 세계관 또한 확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왕양이(尊王洋夷)의 소중화 의식과 위정척사의 기치에 경도되어 있던 전대 전통지식인들과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그가 <오도가>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유교의 가치는 중화 문명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긍정될 수 있는 가치였다.

이와 같이 이태일의 <오도가>는 그가 가졌던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전통지식인으로서의 실천적 반응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태일은 근대전환기 조선 사회의 위기를 외래 종교의 난입과 이에 따른 유교의 쇠퇴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전대 유학자들의 현실 인식을 그가 많은 부분에서 계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적

14) 구한말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과 20세기 초반 이태일의 <오도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을 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전통지식인으로서 외래 종교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의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고민의 종착점은 흔들리는 유교를 수호하고, 이를 통해 요순지치로 상징되는 유교적 이상세계로의 복귀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태일의 지향은 <오도가>에서 도통의 연원을 찾고, 가문의 선현을 통해 이러한 도통이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도가>에서 보여준 이태일의 현실 인식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기준이었다. 이 글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일합방 이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내려진 훈패를 거절한 후, 그가 <육산시>와 <서사문(誓死文)>을 지었던 것은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태일은 일제강점기 동안 고향인 영천 용산정사에 은거하며 강학과 수양에 매진하였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도통을 교육을 통해 확산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오도가> 또한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 속에서 창작된 작품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5. 결론

이태일의 <오도가>는 근대전환기 개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유교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근대적 사상이나 가치를 담아내기보다는 중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전통적 세계관 속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을 단지 역

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퇴행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대전환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현실의 변화를 자신의 신념 속에서 찾고자 했던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오도가>의 구성과 서술 양상을 살피고, 작품에 나타나는 도통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자의 현실 인식과 도통이 가지는 관계상을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오도가>는 외래 종교가 도래하여 난립하고 있는 근대전환기의 시대상 속에서 오도, 즉 유학의 도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작자의 지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었다.

이태일은 근대전환기 조선 사회의 위기를 외래 종교의 난입과 이에 따른 유교의 쇠퇴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전대 유학자들의 현실 인식을 많은 부분에서 계승하고 있었지만, 전통지식인으로서 서구 문명의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함께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고민의 종착점은 흔들리는 유교를 수호하고, 이를 통해 요순지치로 상징되는 유교적 이상세계로의 복귀였다. 이러한 이태일의 지향의식이 <오도가>에서 도통의 연원을 찾고, 가문의 선현을 통해 이러한 도통이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참고문헌

國譯 『明庵全書』, 대보사, 2018.

김동연, 「조선 후기 가사의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 경북대 석사논문, 2017.

안외순, 「식민지적 근대문명에 대한 한국 유교의 분기와 이념적 지향」, 『동방학』 17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9, 279-312쪽.

유영옥, 「근대 계몽기 正典化 모델의 一變化 —‘聖君’에서 ‘英雄’으로」, 『대동문화연구』, 67집, 대동문화연구원, 2009, 295-326쪽.

이동영, 「李明庵의 歌辭」, 『도남학보』 2집, 도남학회, 1979, 69-79쪽.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121-157쪽.

조유영, 「조항의 <箕裘謠>에 나타난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50, 한국시조학회, 2019, 157-181쪽.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목록집, 『벽진이씨 명암고택』, 2012.

<Abstract>

The meaning and Dotong configuration of Myeongamgasa <Odogo>

Jo, Yu-Young*

<Odogo> was written on consciousness of crisis for declining Confucianism in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This gasa could not receive attention cause of <Odogo>'s contents seems like quite similar other poems in that period. However <Odogo> has think and awareness of reality of traditional intellectual in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so it is very important and valuable. In this cognizance, this paper focus on <Odogo>'s structure and description aspects, try to discuss Dotong configuration, and ponder the causes of awareness of reality and connection.

<Odogo> be reflected in could overcome ethnic group's difficulty by new understanding Confucianism. <Odogo> emphasis pedigree of Dotong which is from China to Joseon and lead to Yeongnam academic groups. And that Dotong lead to Lee Tae-il's family and him. Thus Dotong configuration in <Odogo> was created by his personal awareness of Dotong.

Key Words : Dotong, <Odogo>, Myeongamgasa, Lee Tae-il

■ 논문접수 : 2019년 11월 25일

■ 심사완료 : 2019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9년 12월 10일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